



**국립대전현충원, 사진 및 체험소감 공모전 시상식 11일 개최,
사진 ‘소방관의 기도’ 대상 수상**

- 11일(목) 10시 30분, 대전현충원 복지관 2층강당에서 개최
- 사진, 체험소감 공모전 입상작 30개 작품 시상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직무대리 김상현)은 12월 11일 10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18회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제21회 나라사랑 체험소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0일(수) 밝혔다.
-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사진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묘역 등 이와 관련된 작품을 비롯하여 대전현충원 내 가족과 함께 또는 나라사랑 체험교육 및 문화행사 등 선양활동과 관련된 작품과 묘역참배, 안장식 등 대전현충원 일상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49점의 사진이 접수되어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9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 올해 공모전은 모전은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입선 10점으로 총 19점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및 입선에는 국립대전현충원장상이 수여된다.
 - 대상에는 ‘소방관의 기도’가, 금상에는 ‘독립유공자 묘역의 빛내림’과 ‘그리움’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정되었으며,
 - 특히, 대상작인 ‘소방관의 기도’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호국영웅을 비롯하여 묵묵히 현재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같은 많은 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용의 완성도가 높다고 심사위원은 의견을 전했다.

□ 사진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진행되는 제21회 나라사랑 체험소감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130편의 응모작 가운데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3편, 입선 3편 및 광복80주년 계기 특별상 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에는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불개 천둥이' 영상을 보며 나라를 지킨 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되새긴 '천둥이의 빛이 스민 푸른 묘역에서'라는 제목의 소감문이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대전현충원의 묘역해설, 보훈스쿨 등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느낀 감동을 시, 수필, 블로그 콘텐츠로 표현함으로써 감사와 다짐을 진솔하게 담아내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참여자 개인의 생생한 체험과 깊은 울림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작품집 발간, 사진전 개최, 홍보물 제작 등의 국립대전현충원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체험소감 공모전 수상작은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게시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나서는 한편, 보훈의 성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공모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김상현 현충원장 직무대리는 현충원의 다양한 모습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책임자	팀 장	유지현 (042-820-7060)
		담당자	주무관	신주원 (042-820-7065) 이지영 (042-820-7063)

□ 행사개요

- 일 시 : '25. 12. 11.(목) 10시 30분 ~11시
- 장 소 : 대전현충원 복지관 강당 2층

□ 시간 계획

시간	소요(분)	행사내용	비고
10:30~10:35	5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0:35~10:40	5	○ 사진공모전 입상작 관람(영상) ○ 체험소감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낭독	
10:40~10:50	10	○ 사진 부문 시상 - 사진 부문 수상작 - 수상자 중 참석자(7인) 및 단체사진 촬영	
10:50~10:55	5	○ 체험소감 부문 시상 - 수상자 중 참석자(5인) 및 단체사진 촬영	
10:55~11:00	5	○ 축하	
11:00~11:05	5	○ 단체사진 촬영(사진+체험)	
11:05~		○ 폐회선언 및 입상작 자율관람	